

불어닥친 '물가' 태풍

학교주변 물가동향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 사회 전반에 물가는 대폭인상, 난황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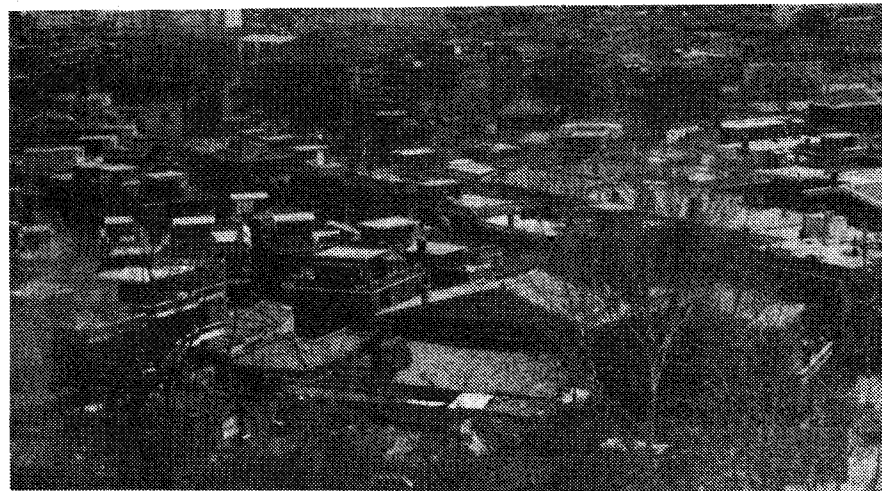
이에 학생들의 생활 근거지인 학교주변의 물가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물가인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註)

이러한 "우리학교 신입생·재학생의 상당수가 '삼의원'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기숙사의 확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생총인원의 50% 상당이 지방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인원의 15%를 기숙사에 수용

문은 설문항에서 '매우 불만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55.8%나 되며, 이중 음식 질의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현진(경제·3) 학생인권복지위

밖에 없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 소비자물가 상승등에 따른 경비지출의 차액이 커 수량적인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들이 대폭 물가인상



기숙사 시설 확충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학생이 3백 명에 달한다.

기획취재

I. 서울캠퍼스 주변

학교주변의 과다한 물가인상에 대해 소비자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작년부터 엄청난 물가고를 보인 사회현상이 미친 영향으로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하숙·자취비, 학교앞 음식점, 각종 음료 및 유흥비가 평균 20~30%인상된 것때문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학교주변 물가는 평균 5%의 인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조치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빈약한 주머니사정에 비해 불만은 많아지고 있다.

우선 하숙비를 보면 2인1실의 경우 현재 18~20만원으로 학기당 5천원, 1만원 폭으로 인상된 것이 올해는 2~3만원이나 올랐다. 혼자서 겨우 쓸 수 있는 자취방은 50~1백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13~15만원으로 작년보다 3~4만원정도 인상돼 지방학생들의 거취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부동산 주인은 "방값을 내리라고 하거니와 우선 다른 물가부터 내려야지요. 자체·인건비가 오르는 데 방값이 안오를 수 있겠습니까? 작년 2월에 건물값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85만원 들던 것이 올해는 1백35만원 드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물가

해야 하는 교육부담보다 적은 수입 1백6명만을 수용하고 있어 절대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삼의원의 입사조건이 원거리 지방학생과 가정사정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적우수자로 고시생들만 입실하게 돼 일반학생의 혜택기회는 더 좁은 형편이다.

학교앞의 하숙·자취비의 인상과 함께 음식점도 작년보다 30%의 인상을 올리고 있다.

"양과 1자투가 3천원이던 것이 이제 2만원이 드니 물가인상을 알만하죠. 현재 밥값이 1천5백원 정도지만 반찬값이 그에 못따라가자 벌써부터 밥값을 올리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앞 K식당 주인의 말처럼 학교주변을 식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예상이다.

이에 반해 교내식당의 경우 1일평균 학생이용률은 전체학생수의 10%로 타대의 30%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지난 22일 학생인권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식당 이용의 만족도를

원회 부위원장장은 "우리학교 학생식당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너무 외진곳에 위치한 점을 들 수 있고, 식당이 협소해 밥을 먹기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들 수 있죠. 게다가 인상된 가격에 비해 식사질은 여전하죠"라며 식당운영상 부족한 대안이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한편 책값의 인상은 물가인상을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고 있다.

"출판사에는 제본하는데 페이 지당 12~13원 들던 것이 요즘 20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책값이 15~20% 정도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살 때마다 책값이 비싸다고 하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는 학교앞 G서점 주인은 "학생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1~2백원 오른 커피값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책값 인상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라며 학생들의 그릇된 의식을 꼬집기도 했다.

이렇게 학교주변 물가는 큰 인상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인상의 일차적인 요인은 땅값·주택값 인

를 수치는 허구적인데 실질적인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인상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II. 수원캠퍼스 주변

올해 초 서천골 자취비와 하숙비, 음식점등 대부분 물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단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학생들의 커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 3백

모두 7군데가 있는 하숙의 경우 평균 한집에 10여명이 하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숙비는 작년 13~15만원 정도였으나 올해 초 17만원내외로 평균 3, 4만원이 올랐다. 이번 인상의 주요인은 식비의 인상때문이라고 하숙집 주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한편 서천골에 비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신갈의 경우 하숙비가 20만원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아주대등 타대학의 경우 22만원에서 25만원선으로 서천골보다는 평균 4만원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고, 현재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알아보면 88년부터 매년 꾸준히 1천2백원, 1천3백원, 1천5백원으로 오르다가 올해 초 1천8백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상인들의 가격담합(카르텔)에 의한 인상이다. 이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카르텔형



◇음식값 인상요인을 소비자인 학생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서 다시 공급받고 있는 입장에서 방학중 영업을 거의 중단하는 실정과 토요일, 일요일의 휴무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높은 인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음식값 인상과 관련해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는 기숙사와 가격담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단과대학별 서명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후 업자와 가격협상을 했다. 지난 18일 오후 모인자리에서 학생측이 주장한 '중간가격대의 가격완원과 음식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업자측이 주장한 '1백원의 가격인하'인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학생측은 그 다음날인 19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서천골 물가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회성만의 가격인상과 카르텔형성, 불매운동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천골에 학교가 들어선지 10년이 넘었으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학캠퍼스다운 문제인 것이다. 캠퍼스다운 올바른 자리매김과 함께 학생식당의 학교적성과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은 수원캠퍼스가 건립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동취재반

오은희 記者

이지환 記者

기숙사 증축, 고향골 하숙비 안정의 필요조건 서천골 물가 25% 상승해 학생부담 가중시켜

"물가 인상의 일차적인 요인은 땅값·주택값과 함께 임대료가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혁명의 달'에 떠오르는故 이수병 동문의 넋

의 하나가 사회주의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몰아칠 전염병을 유발시킨 것일까하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문은 사회주의의 변화를 배경으로 부각되었던 "사회주의 체제보다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잘못된 논리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사회주의를 '모범'으로 삼았던 운동진

'모범'의 붕괴라는 논리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따금 '모범'이 가지는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운동진영과 민중진영에게는 '모범'에 대한 확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때의 '모범'이란 적어도 민중들의 사상적인 공명과 변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되었던 선배들의 치열한 현실인식과 실천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선배들의 활동이 경제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은 너무도 미약함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대해 요인 중의 하나가 '전통의 단절'이라 하겠다. 그러면 '전통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재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계승과 '모범' 창출

영과 대다수 민중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있어서도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또한 행위의 방향성 제시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막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범'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일종의 지향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역으로 말해서 '모범'이 붕괴되면 지향의 상실로 인해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방사회주의 국가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유발시킨 전염병 또한

우리학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문화의 개인주의적인 경향, 사회적 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할 대학생들의 심화되어만 가는 정치적 무관심, 연중 평균 집회참가인원이 2백명도 넘지 못하는 각급의 상황에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줄 '경희의 모범'은 무엇인가? 애석하지만 없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암울했던 유신독재하에서부터 80년대 억압을 본연히 떨치고 일어섰고, 자생·분산적이었던 학내운동과 학우들을 단순히 '집회동원 세력'정도로 대상화시켰던 70년대와 80년대초의 오류를 극복하고 90년대 지금의 '경희'를 이루기까지 튼튼한 교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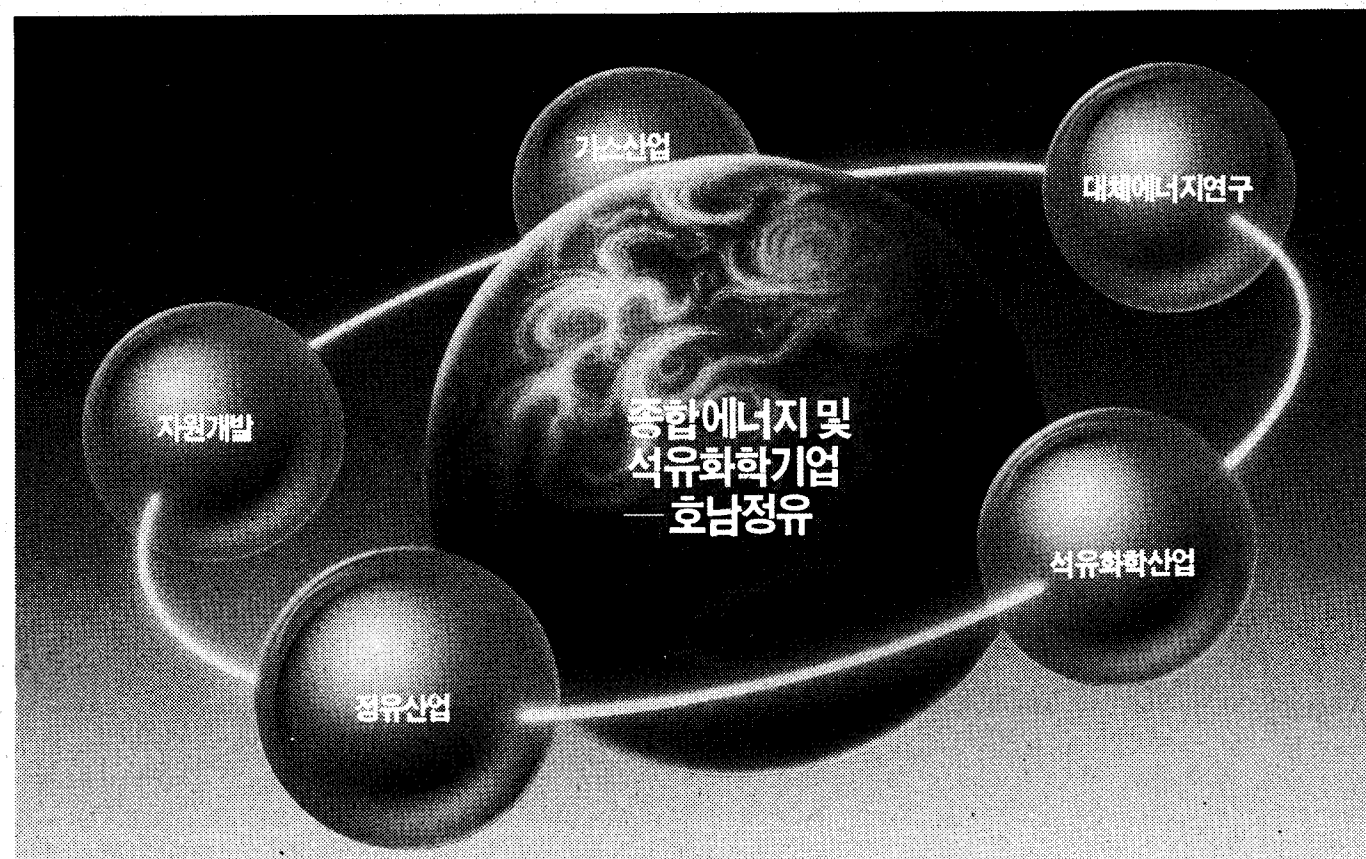
작년부터 고 이수병 동문 추모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고 이수병 동문 추모사업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과 '경희모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희역사' 속의 인물·발달사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는 '경희모범'의 창출로 이어져야 하며, 학우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4월이 왔다. 이 4월은 경희학우들의 가슴에 4·3항쟁, 4·19혁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할 것이며, '혁명의 4월'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리고 경희학우라면 이 '혁명의 달'에 온몸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들어기신 고 이수병 동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남정유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판매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힘찬 향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의지로써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하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폴리프로필렌공장이 이미 BTX공장을 이미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각종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무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공급을 위해 19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열파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